보도자료

- 9/14(목)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

오늘 9.14(목) 오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정례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 김정은 방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9.13(수)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 계기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 개발을 포함,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 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 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